

광주수영대회 성공위해 민·관 역량 모은다

협업 업무 막바지 점검·대회 준비상황 공유

이 시장 “수영대회 성공 개최에 총력” 당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시 관계자, 수영대회 조직위, 자치구, 여수시, 광주 소재 11개 기관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지원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광주시와 조직위, 각 유관

기관은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민·관 협동으로 역량을 총 집결시키기로 결의했다.

대회 시설은 오는 20일 국제수영연맹(FINA)의 최종 현장 점검과 승인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선수촌은 숙소 내부 마감, 편의·위락시설 설치, 기능실 구축 등 부대공사를 하고 있다.

대회 지원요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운영인력과 물자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현장에 배치해 대회기간 해야 할 역할을 숙지게 하는 한편 개·폐회식 의전·수송 분야는 현장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조직위는 본격적인 현장 중심 운영체제를 가동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구·아티스틱수영·하이다이빙 등 3개 실외경기장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관람객과 운영요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더위 쉼터, 쿨링포그, 쿨링존을 설치해 폭염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경기장·선수촌 주변과 주요거점 150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50개의 주요노선 살수차를 운

영하는 한편 광주시 전역에 무더위 쉼터 50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선수단과 관람객 등에게는 얼음물과 부채 등 냉방용품 배부하고 2,500명의 재난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대회 환경을 조성한다.

대회 지원 및 시설관리 등 각 분야의 관계관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선수권대회 2,800여명, 마스터즈 대회 1,300여명이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 배치되어 경기 진행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람객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시민 서포터즈 1만

2,000명은 각급 선수단을 환영하고 경기를 응원하며 관광 및 쇼핑 안내로 친절한 광주의 이미지를 알린다.

시와 조직위는 입장권 판매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장권 판매량 41만9,000매 중 37만매를 판매 목표로 설정하고 각급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체구매 뿐만 아니라 개인구매를 제고하기 위해 향후 우회·동문화·시민들이 입장권 사주기, 경기 함께 관람하기 등의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중점 홍보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회 성공을 위한 각 기관의 유기적인 추진상황도 함께 공유됐다.

오픈워터 경기장이 있는 여수시는 인력과 재정을 비롯해 문화관광·공공시설을 지원하고 국경원, 군·경 협업을 대테러 관련 위해요소 사전 차단 등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수영대회를 학생 현장체험의 좋은 기회로 보고 학생들의 경기관람을 적극 지원하며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상품 개발 및 수영대회 연계 관광홍보를 실시하고 수영연맹은 테스트이벤트 개최와 수영 전문가 지원을 통해 경기운영 능력을 제고한다.

이용섭 시장은 “대회 성공을 위해 시와 조직위, 자치구,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소통이 중요하다”며 “수영대회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즉각 보고되고 공유되어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불편, 애로사항들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 문화예술 코드 대안적 관광브랜드 육성 필요”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관광정책·방향 등 논의

광주시는 지난 7일 양림동 이강하미술관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민선7기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설명하고 관광진흥종합계획 검토 및 주요 관광정책 운영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김점기 광주시의원,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 이용현 (사)광주관광컨벤션부로 대표이사,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교교수,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교수 등 1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 관광분야에 대한 주요 계획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한 각종 논의를 진행했다.

강신겸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술관광을 주제로 한 ‘예술여행도시, 광주’ 사업의 기본구상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강 교수는 “‘예술여행도시, 광주’ 사업이 광주가 지닌 풍부한 문화예술 코드를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융복합해 대안적 관광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남구 양림동 이강하미술관에서 광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을 위한 ‘2019년 제1차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며 “최근 전문가와 떠나는 건축여행, 미술관 아트투어, 공연예술, 문화예술축제 관련 여행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도시관광의 강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젊은층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 활성화를 제안하고, 다양한 관광 관련 인력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영대회 기간 중 관광분야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수영대회를 맞아 10개 협력여

행사와 협약을 맺고 50여개 수영대회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어 수영대회 선수단,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수영대회 기간 중에는 관광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관광홍보 리플렛 등 홍보물 12만부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6·10 항쟁 정신 이어 받아 지역발전”

이용섭·김영록 32주년 맞아 사회 밝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10민주항쟁 32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9일 6·10민주항쟁 32주년 성명서를 통해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극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 속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도,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되는 인권도 위협받고 있다”며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것이 6월 항쟁의 정신계승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대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던 우리 광주에 ‘경제 민주화’라는 또 하나의 시대적 과업을 맡겼다”며 “우리 사회에 양보와 타협, 나눔과 연대 정신을 확산시키고 많은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6·10 민주항쟁 32

주년을 앞두고 “200만 도민과 함께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이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도민이 행복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이룩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에 맞서 전국적으로 펼쳐진 반독재·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았다”며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잡드신 민주열사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전남의 아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아까운 정춘들의 희생으로 6월 항쟁은 시작됐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며 “20일 동안 전국 500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고, 광주와 목표, 등 전남 각지에서 30여만 명이 거기에 그 길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광주시, 노동협력관 사표 수리

시 “공직 임용 전 사전 징계는 안해”

하회섭 광주시 노동협력관(개방형 4급)이 임명된 지 4개월만에 낸 사표가 수리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하

회섭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서를 낸 지 1주일 만이다. 하 협력관은 최근 특가법상 앞선수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

았다.

그는 건강 문제를 들어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 협력관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낸 시점과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시점이 겹치면서 하 협력관이 건강이 아닌 비위 문제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시는 하 협력관의 비위 사실이 공직에 임용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여서 징계는

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과 이상의 유기형이 아닌 벌금형은 이후 공직에 다시 나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시는 조만간 개방형 직인 노동협력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협력관 직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인물이 다시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관광시설물 특별안전점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 여수 이순신광장의 거북선전시관 계단 추락사고와 관련, 전남지역 모든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9일 지시했다.

▶관련기사 7면

김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

객이 많이 찾는 관광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임 야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합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형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임·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 팩 스 062) 720-1020
-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거나 바리새 만안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가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용촌리 산80-7, 산88-5, 산88-7, 산88-8, 산89-3, 산90-4, 산90-5, 산90-6, 1405-1, 1405-2, 1408-4, 1408-5, 1408-6, 1408-7, 1408-8, 1408-9, 1408-10, 1408-11, 1408-12

나. 분묘가수 : 10기

2. 개장시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언장에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할법원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63 남도광역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유휴양) 김명욱 010-4622-2478, 070-4144-2401
김명욱 010-4622-2478, 070-4144-240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를 위의 사업 기간내에 공사용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물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관련 한 분묘는 이 공고로 일괄합니다.

2019. 6. 10
* 공고인 : 농림축산검역본부(유휴양) 김명욱
010-4622-2478, 070-4144-2401

영광군 공고 제 2019-442호

와탄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영 광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와탄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나. 계획현 위치·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위 치		연장 (km)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점	종 점		일 시	장 소
와탄천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189-2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656-2	2.94	2019. 06. 26 (10:00)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우평마을회관
				2019. 06. 26 (14:00)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갈마마을회관

2. 공람 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 람 기 간	2019년 6월 10일~7월 8일(21일)
공 람 장 소	전라남도 영광군 안전관리과, 전라북도 고창군 재난안전과
정보통신망	전라남도 영광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go.kr)

3. 주민공람내용
가.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 관련 의견
나.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다. 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VER 드림포스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림 박백성 032-0316-649511

임 야 단독섬

- ▶ 바로합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